

신이식 후 발생한 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1예

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

김 말 영

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

Kim Mal-young

Dongguk University, Ilsan hospital, Division of Nephrology

장기이식 후 림프질환 (PTLD)은 1% 내외로 드물지만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다. 저자들은 신이식 후 발생한 미만성 대 B 세포 림프종 (diffuse large B cell lymphoma)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환자는 49세로 6년 전 신조직 검사를 통해 만성신증으로 진단받았으며, 5년 전부터 복막투석을 시행해 오던 중 17개월 전 본원에서 생체 비혈연 공여자로부터 신이식을 받고,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, mycophenolate mofetil, steroid를 사용하였다. 신이식 후 수차례의 급성 거부반응으로 총 5회의 steroid pulse therapy 시행하였다. 환자는 수술 후 3개월 후에 소변검사 상 Decoy cell이 발견되어 이식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BK nephropathy의 소견은 없었다. 이후 혈청 creatinine 2.0 mg/dL로 유지되었으나 이식 수술 17개월 뒤 이식신 부위에 종양이 촉진되어 입원하였다. Abdomen MRI 상 이식신에 지름 3 cm, 1 cm, 0.7 cm 세 개의 종양이 있고, 이식신 주위에 7 cm의 perinephric mass가 보였고, PET-CT상 이식신과 perinephric mass 그리고 paraaortic lymph node 2개에서 metabolism 증가가 관찰되었다. Perinephric mass에서 조직검사 시행한 결과 diffuse large B-cell lymphoma, 면역화학검사 상 CD20 양성이었다. 골수검사에서는 골수 내 침윤소견은 없었고 EBV-PCR상 9 copies/ μ L 이었다.

환자는 PTLD 진단하에 투여중인 면역억제제 중 MMF를 중단하고, tacrolimus 및 steroid를 감량하였으며 현재 rituximab monotherapy 중이며 치료 2주 후 추적검사하여 CHOP을 시행할 예정이다.

Key Words: 신이식, 림프질환, 면역억제

Transplantat, Lymphoproliferative Disorder, Immunosuppression